

다양 그득한 체험·전시·공연... 보성아 놀자!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29일~ 5월 7일 '다향대축제' 개최 찾잎따기·그린티테라피 등 9개 분야 77개 프로그램 다채

보성군이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는 202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됐다.

'천년 차의 신비, 보성아 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차 문화 체험·전시·경연, 차 마켓, 공연 등 총 9개 분야 77종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는다.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군은 보성차의 역사성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축제 준비와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4월29일 ~ 5월7일)에 열리는 만큼 차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셉트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의 핵심은 녹차 찾잎따기와 차 만들기, 보성 티마스터컵, 보성(愛)물들다(茶), 그린티테라피 등이다.

녹차 찾잎 따기와 차 만들기는 보성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 인기적인 축제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 차밭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따고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보성티마스터컵은 전국의 10만 카페를 대상으로 보성차를 베이스로 한 식음료의 비주얼, 맛과 향, 창의성, 시장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최고의 식음료를 선정하는 경연 대회다. 이번 대회는 보성차의 활용도와 소비를 촉진하고 보성다향대축제의 축제 의 명품화와 브랜드 이미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愛)물들다' 프로그램은 차음료와 지역민이 준비한 티푸드를 차밭에서 즐기는 붓재그린다향&한국차문화공원, '에프터눈티 피크닉 체험'과 여유로운 숲길을 산책하는 '생태 트레킹', 숙박 후 블렌딩 티 체험과 브런치를 즐기는 '감성 캠프', 일상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김수자 녹차 족욕 카페 '녹차 족욕 체험' 등 보성에 물드는 특별한 체험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보성(愛)물들다'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성의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이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그린티테라피는 나만의 퍼스널 컬러 찾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녹차팩 체험, 손 마사지,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녹차를 이용한 테라피는 스트레스를 완화와 피부 증상 치유의 효과가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보성 다원 녹차밭 전경.

'세계자연유산' 벌교 갯벌, 70억 들여 생태 복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될 보성 여자만 갯벌. <보성군 제공>

보성군, 공모사업 선정...갯벌 복원·염생식물 군락 조성 등

보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벌교 갯벌이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복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벌교 갯벌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서식처 보존이라는 탁월성을 인정받아 2021년 7월 순천 갯벌·서천 갯벌·고창갯벌·신안 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총 사업비 70억 원(국비 50억·지방비 20억 원)

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성군은 벌교 갯벌 복원, 염생식물 군락 조성, 탐조대 설치 등 친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이 순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185억 원 규모로, 올해 전남도에서 정부 예비타

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여에 걸쳐 추진할 사업이다.

3대 추진전략은 건강한 갯벌·바다, 생태문화 힐링 거점, 지역 상생발전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갯벌 습지 정원센터, 블루카본 생태 학교, 갯벌 보전·생태탐방로 등 13개의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순천·여수·고흥을 품은 여자만의 갯벌 환경·생태 복원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 보전,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美 우주센터 벤치마킹·농산물 판로 개척

공영민 군수·공무원 현지 방문 케네디 우주센터 노하우 등 수렴

고흥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미국을 찾아 우주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정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을 고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전남도·고흥군 관계 공무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우드바-헤이저센터,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케네디 우주센터 등을 차례로 찾아 우주산업 강국의 선진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영민(왼쪽 두번째) 고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케네디우주센터 방문자센터를 찾아 운영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흥군 제공>

군은 나로우주센터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도 방문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총면적 580만㎡에 약 700개 시설을 갖추고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연간 방문객은 170만명으로 연간 입장료 수입만 약 2천100억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우주발사시설이다.

공 군수는 이 자리에서 케네디 우주센터의 로켓 거점, 아폴로 체험관, 우주교육 체험관, 아달란티

스 체험관, GATE WAY 체험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군에서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또 케네디우주센터 방문자센터 운영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주과학 분야 교육 체험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수렴하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단속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100만 돌파 임박...투숙률 87%

이달 개막한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관람객 100만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천시가 숙박업소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섰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토요일) 기준 순천지역 숙박업소 투숙률은 87%(382실 중 333실)이다.

순천시는 조사 대상 객실 수 6175실 가운데 표본 382실(20개소)을 뽑아 투숙률 조사를 매주 수요일·토요일 벌이고 있다.

8일 기준 업종별 투숙률은 관광호텔업 95%(42실 중 40실), 일반숙박업 94%(198실 중 187실), 농어촌민박업 67%(18실 중 12실), 호스텔업 76%(124실 중 94실) 등으로 나타났다.

순천에서는 534개의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객실 6579개에 총 1만6727명을 수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박람회가 열리는 10월까지 숙박업소

에 대해 상시 점검을 벌이며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숙박업소 접객대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 요금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순천시는 숙박업소들에 노관규 시장 이름의 서한문을 발송하며 숙박 요금 안정화와 친절·위생 서비스 제공을 호소하고 있다.

김수정 순천시 관광과 주무관은 "지도·단속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숙박업 영입주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다. 10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스스로 자정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고령 1인·장애인 가구에 응급호출기

상반기 340 가구 설치

여수시가 올해 고령 1인 가구와 장애인 47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펼친다.

여수시는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47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340가구를 대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30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이 기기는 집에서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하게 연결해준다.

여수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홀몸 어르신·장애인 1414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 가구에서 95건의 응급상황이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59억 투입 매실·원에 특화

시설 현대화·장비 확충 등

광양시가 올해 농가의 생산비용 등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59억여원을 들여 매실·원에 특화 사업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매실·원에 특화사업을 통해 ▲매실, 시설 원예작물 등 생산 기반 확충 ▲현대화, 소형하우스 지원 ▲유통·시설 장비 확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 등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실 분야는 5억원을 투입해 매실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매실 동력전지가위 지원, 매실장아찌 생산용 씨 분리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원에 분야는 43억원을 투입해 시설원에 현

대화 및 스마트팜 확충, 에너지 효율화사업,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유통 분야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중·소형저온저장고, 농산물 수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 등 12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 실태조사 및 평가를 거쳤다. 이어 지난달 3일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봄밤 천년고찰 천은사에 재즈 선율

22일 '옴 반 라인 퀵렛' 초청 공연

지리산 천년고찰 천은사의 깊어가는 밤 재즈의 선율이 흐른다.

천은사(주지 대진스님)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옴 반 라인 퀵렛' 초청 재즈 공연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천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에서 갈라져 나온 절이다. 천은사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

공연을 열며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가수 양수경의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무대에는 트럼펫·플루겔호른 옴 반 라인과 피아노 전용준, 콘트라베이스 송인섭, 드럼 김영진 등이 오른다.

옴 반 라인의 자작곡과 마일스 데이비스 등 유명 재즈 연주곡들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